기다림이 믿음이다.

성경본문 <출애굽기 14장 1절 ~ 14절>

[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막돌 사이의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3]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4]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5]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6]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7] 선발된 병거 육백 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8]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9]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10]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11]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 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12]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13]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14]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애굽(이집트)을 다스리는 바로(파라호)가 이스라엘 자손이 떠나간 것을 알고는 그들의 뒤를 따라 쫓아오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홍해를 앞에 하고 광야에 갇힌 것처럼 보이는 땅으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바로가 보기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리석은 진로를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조금만 따라가면 충분히 잡아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장면을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는 이유는 바로(세상)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시고, 그 가운데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시면서, 현실의 갈등과 세상의 위협을 마주하고 있는 우리에게 믿음의 승리와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하시려는 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선택이 어려움으로 치닫는다고 생각할 때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받아들이고, 끊임없이 되뇌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1.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원하십니다.

[4]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와 다르다.”라는 말처럼 우리들을 두렵게 하고, 흔들리게 하는 말도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법칙들이** 있습니다. 이익과 승리를 기반으로 해서, 조금이라도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기 위해서 누구를 만나고, 어느 시점(타이밍)에 사고, 팔아야 하는지, 일반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바로에게 장정 60만 명이나 되는 노예들을 한꺼번에 잃어버리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다시 잡아와서 바로 자신과 애굽을 위한 노예로 부리는 것이 세상적인 가치에서 훨씬 생산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초점은 승리와 이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의도적으로 홍해 가로 이끌고 가셨습니다. 바로가 보기에는 영락없이 망할 길이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당신의 하나님 됨을 드러내기 위한 가장 절묘한 기회였습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생각한다면, 우리 앞에 순종해야 할 일들을, 보이는 대로 속단하거나, 우리에게 다가오는 결과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드러나실 것에 주목하여 순종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2. 기다림이 믿음입니다.

[13]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14]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임을 세상과 우리가 알도록 계획하신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에도 결코 실패하지 않으실 것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다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때에, 세상에 증인이 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좋은 증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잘 보고, 기억하여서, 가감 없이 그대로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싸움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경기를 중재하는 심판이 아니라, 승리를 만끽하며, 행복하게 나누는 증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다 이루실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기도제목>

1.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소서.
2. 마음에는 있는 두려움과 조바심을 믿음으로 극복하게 하소서.